

연중 제12주일

기도서 375면(B해)  
제1독서: 욕기 38, 1, 8-11  
제2독서: II 고린 5, 14-17  
복음: 마르 4, 35-40

# 숲정이

“왜 그렇게들 겁이 많  
으냐? 아직도 믿음이 없  
느냐?” 하고 책망 하셨  
다 (마르코 5,40).

## 강론

## 소리

### 신경질난 예수님

한 기호 신부 / 무주 주임

이제 여름철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할 때이다. 한 낮에 피곤한 몸을 가늘 길 없어 한참 꿀맛처럼 단 잠을 청하는데 전화가 걸려온다든지, 누가 찾아온다든지 하면 그 상대를 의식하기도 전에 우리는 먼저 신경질을 내기 마련이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전도활동에 무척이나 지치셨음인지 배 안에서 그만 녹아 떨어지셨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토록 풍량이 일고 물이 들어와도 곤히 주무셨을까?

허나 제자들은 기절초풍, 야단법석을 떨며 주님을 깨우고 말았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도 신경질을 내고 말았다. 풍량을 향해 “조용하지 못해,” 불호령과 함께 호수는 잔잔해지고 말았다.

다음에 “너희는 왜 그리 겁이 많으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책망하셨다.

풍량과 물결에 두려워 떨던 그들은 권능을 가진 분에 대한 또다른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호수의 풍량은 거센 데 비해 제자들의 믿음은 너무도 약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거센 세파에 부딪칠 때마다 너무도 믿음이 약한 탓으로 “제가 죽게 되었는데도 왜 돌보시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의 신경질을 곧 잘 자극시킨다.

한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주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보다는 폭풍만을 너무 의식하며 살아가기에 기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자극시키는 예수님의 신경질은 우리를 다시 편안케 하고 세파를 적당한 시기에 또 가라앉혀 주실 것을 믿기에 예수께서 귀찮아 하시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깨워야 한다.

더나가 주님과 함께 배를 탔다면 선장인 그분께 온전히 몸과 마음을 신뢰와 의탁으로서 내맡겨 드려야 할 것이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데 비람과 바다까지 복종할까?”



### 여의도를 바라보며

사상 최악의 금권타락과 폭력사태 속에서, 그리고 다수 국민의 여당싸움이 우려 속에서 태어난 새 국회의 한가닥 기대를 걸어본다.

포방동네출신에서부터 광산촌 갱부, 언필층 재야농민단체 회장, 이전의 반체제 문인하며 한물 갔다는 영화배우에다가 지역에 따라 애증이 겹치는 삼 김씨까지 뒤섞여 각양 각색의 비법밥같은 국회이지만 이번만은 어떨든 여소 야대의 희한한 구조여서 약골의 통범부 노릇만은 하지 않으려니 치부해본다. 다 그만두고라도 사진 한장 마음놓고 못찍던 의정의 모습이 TV에 생중계될 수도 있게 되었다니 그 신물나는(?) 프로야구를 멍청히 보며 애꿎은 지역감정에 사로잡히는 회수가 한 번이라도 줄어들 것이고 이런 저런 특위가 구성되어 지난날의 이런 저런 잘못을 따지기로 했다는 것도 그저 그렇고 그런 국회만은 아니겠지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

제2, 제3, 제4, 제5공화국의 역대 주역이거나 보조역들까지 고루 모여있는 만큼 각자가 이제까지 밟았던 전철을 되밟지 않는다면, 총선 직후부터 한 목소리로 누누이 강조해 온 「대화」와 「타협」, 「수렴」이 이루어만 진다면, 비상이다 계엄이다 유신이다 하여 서슬 퍼런 「조치」들이 다시 되풀이 되지는 않을 터이다.

13이라는 숫자가 다소 찝찝한데다가 올림픽이 끝나면 어쩐다느니 벌써부터 지레 겁주는(또는 겁먹은) 애기들이 오가는 하지만 그러나 선량들이여, 그대들만은 의연히 소임을 다 하시라. 그대들의 뒤에는 전 비를 묻지 않고 성원을 보내는 현명한 유권자들이 잔뜩 버티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의사당 안에 상주하던 모모 기관원들도 모두 철쭉했다지 않은가.

### 숲정이 산책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성심 성월의 유래

우리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 할 때 일반적으로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인가?'를 기준으로 한다. 의사의 옷인가? 판사의 옷인가? 과장, 계장, 부장, 사장의 옷인가? 아니면 노동자나 농부의 옷인가? 등을 중시하며 마치 그가 입고 있는 그 옷이 바로 그 사람인양 판단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함에 너무 익숙되어 있고, 의례히 그래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신 예수님의 옷은 죄수의 옷이었다. 존경하고 따르기엔 너무도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분을 흠숭하고 따르며 기대를 거는 것은 그분의 하느님과 인간을 향한 '뜨거운 마음' 불타오르는 마음' 때문이다. 죄악 투성이의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목숨은 물론 마지막 살 한 점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의 먹이로 내어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의 마음(聖心)을 공경하고 존경하기 위한 신심 행사가 중세기 때부터 다양하게 발전 해왔다. 특별히 성 요한 유도의

성심에 대한 열성에 감동된 렌네의 주교는 1670년 '예수 성심 축일'을 정하여 우선 지역적으로 시행케 했다. 그후 성녀 「말가리다 마리아 알라콕」에게 가시관에 둘러싸여 활활 타오르는 예수의 심장이 영시된 것에 감명되어 로마의 기타 여러 지방에서도 시행하였다. 또 1765년엔 폴란드 전역, 1856년엔 전체 교회에 허용되었고 현재와 같은 형태의 성심 공경 의식은 1928년 교황 비오11세 때 부터 이다. 말가리다 성녀는 환시중에 다음과 같은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 한다. "나 받은 고통 중에 제일 아픈 고통은 사람들이 내 사랑을 배은 망덕으로 갚는 것이다. 저들이 내 사랑을 보답 한다면 나는 모든 형고를 미소하게 여길 것이요. 더라도 받겠다. 너는 할 수 있는 대로 이 죄를 보속하여 나를 기쁘게 하여다오"라고 - 6월은 예수 성심 성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어떻게 보답하고 있는가!



성서와 함께

7. 성서의 지리(C) : 팔레스티나

성서의 주요 사건들이 일어났던 지역은 '비옥한 초생달'의 한 작은 부분이다. 지중해 동남쪽 한 구석과 접해있는 이 지역에 대해 여러가지 이름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어느 하나 만족스런 이름은 없다. 먼저 '성지'(聖地)란 이름은 순례단을 모집하기 위해 관광회사 같은 곳에서 많이 쓰지만 사회적으로 별로 통용되지 않는다. 더우기 그것은 이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피비린내 나는 비극적 역사에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 다음에 '가나안'이나 '약속된 땅'은 히브리인들이 그 땅에 정착하기 이전에 사용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 시대엔 맞지 않는다. 특히 후자의 경우 신약시대에 가까와질 수록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간다. 나중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느님의 약속은 '땅'의 개념에서 '인물'(=메시아)의 개념으로 바뀐다.

나머지 두 이름, 곧 '이스라엘'과 '팔레스티나'가 이 지역의 공식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둘 다 문제가 없지 않다. 우선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이름이지만, 서기전 922년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남쪽 왕국 유다를 대칭해서 불려지던 북쪽 왕국을 자칭하는 말로서 혼동할 여지가 있다. 원래 이 이름은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느님과 밤새워 씨름한 후 얻어낸 것으로서 '하느님과 겨뤘던 이긴 자'라는 뜻을 지닌다(창세 32, 23-33). 그 이후 구약성서 전체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계약의 백성 또는 그 백성이 살던 땅을 지칭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는 '팔레스티나'는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꽤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필리스테(또는 '불레셋')인들에게서 유래되었다. 이들은 원

래에게 해협을 넘어왔는데, 나중에 팔레스티나의 남부 해변가에 자리잡고 가나안에 정착한 히브리인들과 자주 전쟁을 일으켰다. 기원 후 135년 유대인들의 반란이 있고 난 후 로마황제 하드리아누스는 '유대아'라는 이름을 지도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한편, 이 지역을 팔레스티나로 부르게 했다.

성서학계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이 이름은 정치적인 이유에서 현재 이스라엘 당국으로부터 금지되고 있다. 필자도 현지답사 중 이 이름을 사용했다가 여러번 경고를 당했다. 똑같은 이유에서 이스라엘내 아랍인들 주거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배척받고 있다.

팔레스티나는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베엘세바'에 이르기까지(판관 20, 1. 사무전 3, 20) 남북 240km 동서 160km에 걸쳐 펼쳐져 있는 낮은 구릉과 평원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북쪽에 레바논의 산맥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들이 홀레호 호수를 거쳐 갈릴래아 바다(실제로는 호수이지만)를 이루고, 그곳에서부터 요르단강이 남쪽의 사해로 흘러들어 온다. 갈릴래아(겐네사렛이나 티베리아라고도 불리운다) 호수는 지중해 수평면보다 212m 낮고, 사해는 388m나 낮다.

옛부터 이 지역은 열강들이 서로를 침략하기 위해 지나쳐야 하는 관통도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시도 평온한 세월이 없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평화'를 갈망했는지는 그들의 인사말에서 알 수 있다. '샬롬' 곧 평화라는 말은 전쟁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물질적,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누리는 것으로서, 하느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최종 구원을 뜻한다.☞

종합화장품 할인코너  
중앙화장품 백화점  
각종선물 도산매  
**중앙선물의 집**  
전주시 중앙성당 옆(구 한일싱크)  
박윤규(안담)  
☎ 4-0841  
결혼 선물세트 특별부대

간판·프랑카드·네온사인  
상패·행사기념품·셀프인쇄  
**무지개 광고기획**  
RAINBOW AD PLANNING CO.  
김창식(스테파노)  
☎ (0652) 82-3050  
자 84-77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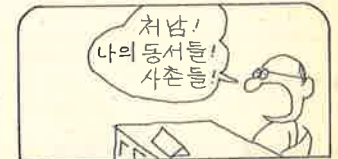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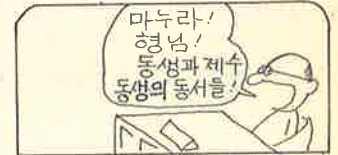
**희소식**  
독사뱀물린 사람 전문치료  
단 1~2회 족욕에서 효과 완치  
송준의(발리바)  
전주시 전미동1가 전당리 시내버스종점  
시내버스인내: 9번, 31-1, 31-2, 31, 49번  
☎ (야)5-3544, (주)3-9441

**현대미용학원**  
김금순(테레사)  
학생수시모집  
피부관리사 양성  
전주중앙성당 건너편 버스정류장  
☎ 86-2211

교 구 소 식

요십이 (776) 김병오

1. 교구 인사 위원회 : 23일 오전 10시 30분 장소-교구청 회의실
2. 성지개발 위원회 : 23일 오후 2시, 장소-교구청 회의실
3. 혼인 강좌 : 26일 오전 9시 30분, 장소-가톨릭 센터, 참가비-4,000원, 준비물-미사, 필기도구.
4. 성소자 모임 : 26일(일) 오후 2시 가톨릭센터, 대상-중·고·대 일반 남자 성소자.
5. 중·고 교사 연합회 하계 연수회 : 일시-7월 1일(금)~4일(월), 장소-송광사 제2 아영장, 대상-각 본당 중고생 교리교사 및 지도자 접수 및 문의는 교육국(85-0041)
5. 은혜의 밤 철야 기도회 : 24일(금) 밤 11시~25일 새벽 5시까지, 장소-전동성당 소강당
6. 선택가족 여러분을 부친 성심여대에서 갖는 아시아 7개국 선택 대표들의 모임인 아시아 대회 폐회미사와 기념 축제(25일 오후 4시)에 초대합니다.
7. 사랑의 씨튼수녀회 성소피정 : 26일(매월 네째주일) 09:30~17:00, 장소-광주시 북구 본촌동 사랑의 씨튼수녀원(062-525-2004), 대상-고졸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여성. 준비물-미사, 필기도구, 회비-2,000원, 교통-고속버스 운암터미널 하차후, 길 건너서 19번 버스→봉촌동 파출소 하차(수녀원 버스 대기)
8.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성소자 피정 안내 : 25일 오후 5시-26일 오후 2시, 주제-수도 생활(부르심), 참가비-2,000원, 신청-광주시 북구 임동 67번지(062) 54-0041-3(신청마감-24일까지), 교통편-1,7,8,9,10,21,101,108,110번 시내버스
9. 마리스타 교육 수사회 성소 모임 : 매일 네째주일 오후 2시, 문의-(02) 324-8356(0331) 44-9140(수련원), 장소-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85-1 본원.(절두산 기념성당 옆)
10. 성·빈첸시오·아·베울로회 연수회 : 26일 오전10시, 장소-가톨릭센터, 대상-성·빈첸시오회원, 각 본당 사회복지부장, 관심있는 분.
11. 베소라성서 강의 : 매주 화요일 오전10시~12시-구약(출애굽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신약(공관복음) 강사-김정원 신부, 장소-가톨릭센터 3층, 회비-매주 1,500원



※ 축! 영명 성 알로이시오(21일) 이 태주 신부님  
성 요한세자(24일), 김봉희, 왕수해, 한기호, 김요한 신부님 축하합니다.

두레상 ————— 세계 성체대회를 앞두고

보리밥 먹던 시절엔

보리 타작이 한창입니다. 된장에 푼고추, 고추장에 비빈 콩보리 밥이 주 메뉴였던 시절이 었그제 갔건만 이젠 구경하기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생활은 풍부해졌으나 삶은 더욱 더 각박해졌음은 우리 모두의 아쉬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임을 잊고 사는 결과입니다. 농촌을 지키는 농부들의 수고 덕분에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애쓰기 때문에 좋은 옷과 공산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이가 서로 가진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보태고 나누어 흐르게 할 때, 우리는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흐름을 가로 막아 자기에게만 쌓아 놓는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가지지 못해 다툼과 미움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바로 이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함께 잘 살려면 모두가 서로 나누고 그 흐름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나눔은 사랑에서 나오며 우리는 그 사랑의 나눔의 절정을 예수님에게서 봅니다. 그분은 하느님으로서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과 피까지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그분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써 그 사랑의 마음, 나눔의 힘까지도 전해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이웃을 위해 나눔의 삶을 살도록 파견됩니다.

□ 1분 명상  
길을  
찾든지  
아니면  
길을 만들어라.  
명동피부과의원

임야·녹지·건물·상가·투자상담은  
**대창부동산**  
김 행표 (클레멘스)  
이 재우 (요셉피나)  
사무실 군산 63-8686  
야간-자택 62-7844

전북의료보험조합 지정  
**김안과의원**  
원장 김 효열  
전 은주 (베로니카)  
전주교야비화점 옆 중앙성당 앞  
☎ 85-3020

의료보험조합 지정병원  
**신일군신경외과의원**  
부설 : 물리치료실  
원장 신 일균 (아오스딩)  
윤 귀자 (로사리아)  
병원 84-7288 자 8-8417  
관동로 전주백화점→다가교 중간

㉠ **등본한의의원** ㉡  
등본한의원  
진료과목 : 한방내과·부인과·소아과  
침구과·한방요법실  
이리시 중앙동 3가 26-4 ☎ 52-4666  
원장 김 경환 (파비아노)

**최승열치과의원**  
원장 최 승열  
(막시 밀리아노 콜베)  
전주시 전동 1가 260  
(행복예식장 건너편 2F)  
☎ (0652) 86-6169

믿음과 정성을 다하는 집  
**광명안경원**  
박 종락 (조화서 베드로)  
안 화동 (프리스카)  
오거리 나정형의과 앞  
☎ 74-1123  
3-6709

# ☐북전주지구 본당소식☐

## \*중앙

사제관 5-1713 주임신부 성민호  
사무실 5-1711 보좌신부 김진룡  
수·유 5-1712 사목회장 엄의도

★ 반미사 안내 : 22일(수) 오후 8시, 9반-이덕남(3-2465)

1. 유아세례 : 24일(금), 10시까지 접수  
대부·모님께서도 꼭 참석하세요.
2. 공소미사 : 다음주일(26일), 오후 4시 30분
3. 모 임 : 하늘의 문 푸리아-오늘, 오후 2시 성체회-24일(금)  
어머니 미사후 재속형제회-다음주일(26일) 오후 2시
4. 성체조배에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166,105원 ☐ 교무금 : 725,500원

## \*서신동

사제관 4-2214 주임신부 박성팔  
사무실 사목회장 박병열

★ 벽돌헌금함 : 여러분의 정성어린 벽돌한장이 아름다운 성전을 이룹니다.

1. 예비자 모집 : 6월30일까지 모집. 7월1일부터 교리를 실시
2. 가정방문 : 어은골-6월21일 6월23일-빠진가정 가정방문시 빠진곳은 사무실에 연락바람
3. 교리교사 모집 : 항상 접수 본당사무실
4. 모 임 : 상호친목과 교회발전을 위하여 30세이상50세미만 남자로서 뜻을 같이할 형제들의 모임을 6월26일 10시 미사후 회의실에서 창립 총회를 갖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신청바람. 신청-본당사무실
5. 금주본당 청소 : 평화의 모후Pr, 차주-증거자들의 모후Pr
6. 금주미사 안내 : 증거자의 모후, 차주-애덕의 모후Pr
7. 금주전례 : 해설-이귀례 기도-김남근, 이영희 차주 : 해설-이귀례 기도-김영복, 이한은

☐ 지난주봉헌금 : 239,650원 ☐ 교무금 : 245,000원

## \*금암

사제관 3-1653 주임신부 오현택  
사무실 사목회장 소만영  
수녀원 76-0961

★ 예비자를 인도합니다 : 7월3일 일교식

1. 금주는 선교주간 : 푸리아회의 : 오늘 오후 2시
2. 차주는 애령주간 : 선령들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3. 안나회, 모니카회 월례회 : 24일 오전 10시 미사후(저녁미사없음)
4. 금성회 : 차주공식미사후(야외)
5. 미사예를 봉헌합니다 : 가정을 위한 생미사, 선령을 위한 연미사.
6. 5월22일 영세자 첫교백성사 : 7월2일 오후 1:30
7. 금주전례 : 해설-나인구 봉헌-황보용남부부 복사-이대용, 최환열 신자들의 기도-13반,14반,15반
8. 차주전례 : 해설-이창우 봉헌-김맹수부부 복사-정문영, 강남수 신자들의 기도-16반,17반,18반
9. 미사안내 : 바다의 별Pr 차주-사랑하오신 모친Pr

☐ 지난주봉헌금 : 709,520원 ☐ 교무금 : 605,000원

## \*승천동

사제관 74-1004 주임신부 김태운  
사무실 사목회장 소병울  
수녀원 4-1142:

1. 모 임 : 제대회-24일 오후 2시  
요셉회-26일 공식미사후(60세이상 남자)
2. 본당신부님 면담시간 : 매주수요일 오전 10시-12시, 저녁미사후
3. 예비자교리 안내  
· 주일반-오전 9시 · 수요일반-오전 10시 · 금요일반-저녁 8시

4. 오늘은 교무금 봉헌주일입니다.
5. 다음주일은 나눔의 날
6. 본당 환경미화 작업에 힘써주신 바울로회, 하삼바울로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7. 금주본당 청소 : 자비의 모후Pr 25일 오전 11시
8. 금주전례 : 해설-김혜숙, 박세영 독서·기도-성심부녀회
9. 차주전례 : 해설-이기임, 이권창 독서·기도-바울로회

☐ 지난주봉헌금 : 288,420원 ☐ 교무금 : 97,000원

## \*덕진

사제관 72-3389 주임신부 성태수  
사무실 3-2182 사목회장 양상렬  
수·유 72-1222

1. 성모회 : 공식미사후(2층 회의실)
2. 주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 중·고 지도자,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합니다.
3. 예언자의 모후 꼬미씨울 : 26일 오후 2시 성당
4. 구역모임 참석 : 22일 23일
5. 교백성사는 평일 미사후와 토요일은 어린이 미사후에 있습니다.
6. 금주전례 : 해설-정석의 복사·독서-선교분과 기도-덕진8반  
차주전례 : 해설-정석의 복사·독서-요셉회 기도-덕진9반
7. 금주본당청소 : 은총의 어머니Pr-25일 오후 1:30
8. 청년들 만남의 날(본당신부님) : 24일 저녁 8시(매월 마지막 주요일)

☐ 지난주봉헌금 -699,130원 ☐ 교무금-485,000원

## \*숲정이

사제관 76-1320 주임신부 나궁열  
사무실 3-7366 사목회장 이규철  
수녀원 3-9567

1. 오늘 : 본당 사랑의 나들이에 참석하신 많은 형제 자매님들께 뜻깊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2. 성요한세자 탄생 대축일 : 24일
3. 25일 : 제대회(오전 10시) 병자방문, 유아세례
4. 다음주일 : 푸리아
5. 금주본당 청소 : 화-순교자의 모후 토-상아모탑
6. 미사안내 : 순교자의 모후
7. 미사해설 : 강 삼
8. 금주전례 : 독서·기도-최종수, 조현숙 봉헌·기도-양승진, 홍신욱  
차주전례 : 독서·기도-김영일, 장형순 '봉헌·기도-강두호, 전복순

☐ 지난주봉헌금 : 398,980원 ☐ 교무금 : 260,000원

## \*동산

사제관 74-4614 주임신부 소순형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박영철  
수녀원 5-4212

1. 유아영세 : 오늘 오후 2시(12시전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2. 예비자 교리 : 주부반-목, 오전 10:30, 일반-목, 오후 8시.  
중·고생-토, 오후 6:30
3. 생활교리 : 공식미사후 교육관(강수녀님 지도)
4. 모 임 : 구역장 모이세회-공식미사후, 푸리아-오늘 오후 2시 사목회, 애덕회, 청년연합회-차주 공식미사후
5. 금주 구역미사 모임 : 21일 미사-원동, 22일 나눔잔치-동산1 구역 24일모임-동산8구역(김병만·손택규)
6. 금주본당 청소 : 증거자의 모후, 차주-은총의 어머니
7. 수녀님 방문 : 수-가난한이의 어머니, 금-죄인의 의학
8. 금주전례 : 해설-김택천 독서①최연조 ②김영원  
차주전례 : 해설-한기철 독서①이희준 ②신문자
9. 제대회 회원모집 : 관심있는분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 지난주봉헌금 : 269,060원 ☐ 교무금 : 261,400원  
☐ 수요헌금 : 35,400원

## \*인후동

사제관 74-1929 주임신부 서용복  
사무실 75-6389 사목회장 김병문  
수녀원 3-9236

1. 사목회 임시회의 : 6월 26일(월) 공식미사후
2. 금주모임 : 안나회 19일 공식미사후
3. 7월 3일은 본당신부님 영명축일입니다. 많은 기도와 물질예물을 봉헌합니다.
4. 박수녀님 피정종이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5. 예비자 교리 7월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인도 바랍니다.
6. 성전 신축헌금 납부에 우리의 정성을 다합니다.
7. 본당 사목 방문 : 17일 오후 2시 회장단과 분과위원장 참석바랍니다.
8. 성지순례사진 영세사진, 첫 영성체 사진 찾아가세요.
9.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가세요.
10. 금주안내 : 하늘의 문 pr 다음주 안내 : 구세주 모친 pr

☐ 지난주 봉헌금 : 585,470원